

2024 수능 국어 대비

백분위 99%를 위한 1%를 담다.

why

2024
수능
국어

문학

평가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찾다.



* 3 회 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1“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니다.”

2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3“어디?”

4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5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6“겨우 돈 만 원야?”

7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획 내던진다.

8“내가 알우?”

9“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힐 자식, ①내가 엠펜*한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구서.”

10“정중으루 가져와요?”

11“내 말 한마디에, 죽을 늪이 살아나구, 살 늪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보라……. 증중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12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13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14백 주사의 아들 ①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15남들은 주린 창자를 즐라멜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 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B] 16××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17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18광목 여섯 필

19고무신 스물세 켤레

20지카다비 여덟 켤레



MEMO

²¹빨렛비누 세 귀짝

²²양말 오십 타

²³정종 열세 병

²⁴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더라**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어치의 옷감 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²⁵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찹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D] ²⁶일번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놓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E] ²⁷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²⁸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²⁹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³⁰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땀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³¹“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³²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³³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뜰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³⁴“자네가, 저, 저, 방, 방…….”

³⁵“네, 삼복입니다.”

³⁶“아, 건데, 자네가…….”

³⁷“히, 살 때가 댤답니다.”

³⁸그러고는 ⑥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다.

³⁹이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③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⁴⁰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④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⁴¹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⑤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MEMO

⁴²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⁴³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옴피(MP) : 미군 헌병.

1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MEMO

3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b :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c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d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준다.
- ⑤ e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4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① [A] :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② [B] :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③ [C] :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D] :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 ⑤ [E] :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1“네가 일규를 어떻게 아냐? 네간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2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3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4기범이 것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5“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6㉠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7“너는 그놈이 아깝다구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편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8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구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걷어차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중략)

9“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10“처음엔 **저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더구나 이리루 들어오시자 머리를 깎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11그러나 오래 뫼시구 살다 보니 저대루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소?”

13“과거 얘기는 좀체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 씬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귀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묘한 철학**을 지니구 계셨습니다.”

14“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소?”

15“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밖에 없다구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 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17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



MEMO

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¹⁸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¹⁹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²⁰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두 했습니다.”

²¹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²²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²³“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²⁴“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²⁵“누구랍니다, 그 친구가?”

²⁶“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구만 부르셨습니다.”

²⁷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²⁸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²⁹㊸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³⁰“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답니까?”

³¹“**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³²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³³㊸ 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³⁴“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³⁵“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³⁶나는 다시 기범이 지껄었던 과거의 ㉞ 요설들이 생각난다. ³⁷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³⁸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³⁹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배가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⁴⁰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⁴¹그와 오일규가 맞부딪쳤을 때 오일규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⁴²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 홍성원, 「무사와 악사」 -

MEMO

5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6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 ② ㉡ :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외모가 의심의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 ③ ㉢ :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궁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 ④ ㉣ :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 ⑤ ㉤ :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7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 기여한다.
- ② a에 대한 얘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에서이다.
- ③ '저'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b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 ④ '저'가 a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나'는 b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다.
- ⑤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b에서 a로 변화된 과정과 일치함을 알고 있다.



8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EMO

보기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약사 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귀면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①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려던 상대의 부재가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겠군.
- ②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걷어찼’던 일규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술은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군.
- ③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④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이는 동일시하려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겠군.
- ⑤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하겠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그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2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3방에 있으면 쑤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는 것. 4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5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6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7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8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9연이틀을 쑤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10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새운다는 것은 못 할 일이었다. 11나는 제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들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12그런 생활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건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13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14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15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16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였다. 17고민했다. 18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19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2012시부터 4시까지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21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小型)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22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돋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친다.

23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24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25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26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27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28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29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 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30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類)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 만한 것이다. 31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32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래도 좋다. 33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34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35도적놈이래도 그렇다. 36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히 도적놈은 아니었다. 37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38이 맞을 못 잇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39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40그러나 지금으로서



MEMO

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⁴¹설사 내 겨드랑의 달같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⁴²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⁴³기적(奇蹟). 기적. 경악. 공포. 웃음. ⁴⁴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⁴⁵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왔다. ⁴⁶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⁴⁷털이 만져졌다. ⁴⁸그런데 닿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⁴⁹털이 괜히 뺏뺏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⁵⁰빗자루처럼. ⁵¹잘 만져 본다. ⁵²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⁵³나는 ㉠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옷을 벗었다. ⁵⁴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을 들여다보았다. ⁵⁵나는 실소하고 말았다. ⁵⁶내 겨드랑에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쫘끄만 날개**가 돋아나 있었다. ⁵⁷다른 쪽 겨드랑을 또 들여다보았다. ⁵⁸나는 쿡 웃어 버렸다. ⁵⁹그쪽에도 장난감 몽당빗자루만 한 것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⁶⁰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곱슬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⁶¹흠. ⁶²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⁶³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 보았다. ⁶⁴**꿇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⁶⁵나는 참말 부끄러워졌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 레닌 : 러시아의 혁명가.

9 **읽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10 **읽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 ③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않는다.
- ④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 ⑤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 보는 대상이다.

MEMO

1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다.
- ② ㉠은 윤리적인, ㉡은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 ③ ㉠은 ㉡과 달리,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다.
- ④ ㉡은 ㉠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겨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 ①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하기도 하겠군.
-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 ④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날개’가 ‘귓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겠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학년도 수능 B형)

[앞부분의 줄거리]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과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는 내심 서로 못마땅해한다. 이런 가운데 ‘금지’는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과의 혼사를 진행하려 한다.

¹설령 금성이가 출중한 재주와 인물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종은 이 혼인을 거절할밖에 없었으리라. ²첫째로 금지는 당학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³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의 소위만 생각해도 뼈가 저리거든 그런 가문에 내 딸을 들여보내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인가. ⁴도대체 당학*이 무에 그리 좋은고, ⁵그 나라의 바로 전 임금인 당 명황(唐明皇)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빚어 내어 오랑캐의 말굽 아래 그네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쑥밭을 이루고 천자란 빈 이름뿐, 촉나라란 두메 속에 오륙 년을 갇히어 있지 않았는가. ⁶금지가 당대 제일 문장이라고 추어올리는 이백이만 하더라도 제 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것을 죽음으로 간하지는 못할지언정 몇 잔 술에 감지덕지해서 그 요망한 계집을 칭찬하는 글을 지어 도리어 임금을 부추겼다 하니 우리네로는 꿈에라도 생각 밖이 아니냐. ⁷㉠ 그네들의 한문이란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늘 이것을 좋아라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드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⁸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해 낼 자이랴.

“한 나이냐 젊었더면!”

¹⁰유종은 이따금 시들어 가는 제 팔뚝의 살을 어루만지면서 한탄한다. ¹¹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 더러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인제는 ㉡ 무 밑둥과 같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¹²속으로는 그의 주위에 찬동하는 이가 없지도 않으련만 당학파의 세력에 밀리어 감히 발설을 못 하는지 모르리라. ¹³지금이라도 젊은이 축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동지를 얼마든지 찾아낼는지 모르리라. ¹⁴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방방곡곡을 뒤져 찾으면 몇천 명 몇만 명의 화랑도를 닮는 이를 모을 수 있으리라. ¹⁵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다. ¹⁶이런 점에도 그는 아들이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¹⁷㉢ 이 늙은 향도(香徒)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¹⁸별써 수년을 두고 ㉣ 그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 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뜨이지 않았다. ¹⁹고르며 고를수록 사람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보담 더 어려웠다. ²⁰유종은 기대고 있던 서안에서 쪽 미끄러지는 듯이 털요 바닥 위에 누웠다. ²¹금지의 청혼을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는 하루바삐 사윗감을 구해야 된다. ²²금지로 하여금 다시 입을 열지 못하도록 ㉤ 다른 데 청혼을 해 놓아야 한다. ²³그러면 신라를 두 손으로 떠

MEMO

받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²⁴삼한 통일 당년의 늠름하고 씩씩한 기풍(氣風)이 당학에 지질리고 문약(文弱)에 흐르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종’이 사위를 구하는 가운데, ‘주만’이 부여의 천민 석공 ‘아사달’을 사모하고 있음이 알려진다. 한편 ‘아사달’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 ‘아사녀’가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못에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못 속에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한다.

²⁵그러나 어느 절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박 사라져 버렸다. ²⁶아까까지는 어렴풋이라도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²⁷아무리 눈을 닦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²⁸돌을 들여다보면 불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헝헝 내어 돌리었다. ²⁹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굵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³⁰마치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31그 눈동자는 띠룩띠룩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A] ³²“이 돌에 나를 새겨 주세요. ³³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 주세요.”

[34그 입술은 달싹달싹 속살거리는 것 같다.

³⁵아사달은 정을 쥔 채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³⁶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 오고야 말았다. ³⁷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림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³⁸초파일 탐돌이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제 코에 풍기던 아릿한 향기, 우레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³⁹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⁴⁰그제야 저 멀리 돈짜만 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⁴¹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뚱뚱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 하면, 아사녀는 샨녘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밖에 없었다.

[42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앓음앓음, [B]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⁴³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⁴⁴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⁴⁵휘슬레를 돌리듯 핑핑 돌다가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그림자가 이내 한 곳으로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말았다. ⁴⁶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⁴⁷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



MEMO

처님의 모양으로 변화였다.

⁴⁸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⁴⁹설레던 가슴이 가을 물같이 맑아지자, 그 돌 얼굴은 세 번째 제 원불(願佛)로 변화였다. ⁵⁰선도산으로 누엿누엿 기우는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제 못물은 수멸수멸 금빛 춤을 추는데 흥에 겨운 마치와 정 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나절의 고요한 못 독을 울리었다.

⁵¹새벽만 하여 한가위 밝은 달이 홀로 정 자리가 새로운 돌부처를 비칠 제 정 소리가 그치자 은물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하는 소리가 부근의 적막을 한순간 깨트렸다.

- 현진건, 「무영탑」-

* 당학 : 당나라의 학문.

13 읽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④ 물신주의에 빠진 세태가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의 비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⑤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1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유종'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이다.
- ③ ㉢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④ ㉣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다.
- ⑤ ㉤은 '유종'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이다.

MEMO

15 [A],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다.
- ② [B]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 ③ [B]에는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억이 나타나 있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무영탑」은 작가 현진건의 예술관, 민족주의적 태도, 현실 인식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가탑 조성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펼쳐 내면서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는 석공 아사달이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특히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 ① ‘유종’이 ‘이백’을 칭송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화랑도 사윳감을 구하려 하는 장면에서,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등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사랑과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금지’와 같은 ‘당학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외세를 추종하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④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에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군.
- ⑤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빛’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군.



1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EMO

보기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설화(「서석가담」)뿐만 아니라, 현진건의 기행문(「고도 순례 경주」, 1929)과 그의 소설(「무영탑」, 1939)에도 나타난다.

[자료 1]

불국사 창건 시 당나라에서 온 석공에게 아사녀라는 여인이 있었다. 아사녀가 갑자기 와서 석공과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큰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아사녀가 비루한 몸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사녀가 남서쪽 십 리쯤에 있는 연못을 내려다보면 석공이 보일 듯하여, 가서 살펴보니 정말 석공의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탑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무영탑이라 불렀다.

- 「서석가담」-

[자료 2]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그는 제 예술로 죽은 아내를 살리고 아울러 부처님에게까지 천도(薦度)하려 한 것이다. 이 조각이 완성되면서 자기 역시 못 가운데 몸을 던져 아내의 뒤를 따랐다. 불국사 남서방에 영지(影池)란 못이 있으니 여기서 곧 아사녀와 당나라 석공이 빠져 죽은 데다.

- 현진건, 「고도 순례 경주」-

- ① 윗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군.
- ② 윗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군.
- ③ 윗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군.
- ④ 윗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군.
- ⑤ 윗글의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군.

* 4 회 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학년도 수능 B형)

1“도대체 박준은 어째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2 그리고 전깃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3“중요한 걸 물으시는군요.”

4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 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5“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6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증의 하나임엔 틀림없지요. 7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재간이 없었던 말입니다. 8한데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9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이 틀테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11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던 말씀입니다. 12환자에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13“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깃불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14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15“옳은 말씀이에요. 16전깃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17“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깃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그가 어째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깃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18“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19“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20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권해 보았다. 21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22“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23별로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중략)

24-이 달의 화제작, 화제작가.



MEMO

²⁵신문지는 벌써 이태쯤 전에 발간돼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에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고 있었다. ²⁶그리고 그 제호 한쪽으로는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 편 몇몇 평론기들로부터 합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²⁷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²⁸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 냈다. ²⁹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³⁰기사가 별로 읽을 만한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³¹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 버리고 없었다. ³²하지만 그 찢어져 나간 다른 조각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³³이미 휴지로 사용이 되고 만 모양이었다. ³⁴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의 몇 마디뿐이었다. ³⁵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³⁶-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³⁷그렇다면 내가 좀더 설명을 하겠다……

³⁸어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³⁹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다.

⁴⁰-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⁴¹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비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⁴²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은 우리집까지 찾아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 젖혔다. ⁴³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⁴⁴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⁴⁵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⁴⁶대답을 잘못 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⁴⁷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⁴⁸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⁴⁹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⁵⁰그런데 요즘 나는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⁵¹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⁵²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가장 성실한 작가의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⁵³한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말이다. ⁵⁴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⁵⁵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이 나고 있는 듯이 보였다. ⁵⁶그리고 신문

MEMO

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부터였다.

- 이청준, '소문의 벽'

1 읽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 ②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 ③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2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 ③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EMO

보기

정신적 외상(trauma)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말문 트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이름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사회적 말문 트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① ‘전깃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
- ② ‘전깃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설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트기에 상응하는 것이겠군.
- ③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⑤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학년도 수능)

(가)

¹그 골목이 그렇게도 짧은 것을 그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을 때, 신랑의 몸은 벌써 차 속으로 사라지고, 자기와 차 사이에는 몰려든 군중이 몇 겹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²이쁜이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³그들의 틈을 비집고,

“이제 가면, 네가 언제나 또 온단 말이나? ……”

⁵딸이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하구나 하는 것같이, 그는 막 자동차에 오르려는 딸에게 달려들어,

“이쁜아.”

⁷한마디 불렀으나, 다음은 목이 메어, 얼마를 병하니 딸의 옆얼굴만 바라보다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턱없는 운전수가, 재촉하는 경적을 두어 번 울렸을 때, 그는 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모든 걸, 정신 채려, 조심해서, 해라 ……”

⁹그러나 ㉠ 자동차의 문은 유난히 소리 내어 닫히고, 다시 또 경적이 두어 번 운 뒤, 달리는 자동차 안에 이쁜이 모양을, 어머니는 이미 찾아볼 수가 없었다. ¹⁰그는 실신한 사람같이, 얼마를 그곳에 서 있었다. ¹¹깨닫지 못하고, 눈물이 뺨을 흐른다. ¹²그 마음속을 알아주면서도, 아낙네들이, 경사에 눈물이 당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갑자기 조금 웃고, 그리고, 문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서 혼도해 버리고 말 것 같은 극도의 피로와, 또 이제는 이미 도저히 구할 길 없는 마음속의 공허를, 그는 일시에 느꼈다.

제6절 몰락

¹³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그야, 외딸을 남을 주고 난 그 뒤에, 흠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은 컸으나 그래도 아직 그것은 한 개의 경사라 할 밖에 없을 것이다)-, 또 ㉡ 한편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 집에 서는, 바로 이날에 이제까지의 서울에서의 살림을 거두어, 마침내 애달프게도 온 집안이 시골로 내려갔다.

¹⁴독자는, 그 수다스러운 점룡이 어머니가, 이미 한 달도 전에, 어디 서 어떻게 들었던 것인지, 쉬이 신전 집이 낙향을 하리라고 가장 은근하게 빨래터에서 하던 말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¹⁵이른테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¹⁶그러나 다만 그들의 가는 곳은,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그러한 곳이 아니라, 경기 강화였다.

¹⁷이 봄에 대학 의과를 마친 둘째 아들이 아직 취직처가 결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서울 하숙에 남아 있을 뿐으로-(그러나, 그도 그로써 얼마 안 되어 충청북도 어느 지방의 ‘공의’가 되어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 신전 집의 온 가족은, 아직도 장가를 못 간 주인의 처남까지도 바로 어디 나들



MEMO

이라도 가는 것처럼, 별로 남들의 주의를 끄는 일도 없이, 스무 해를 살아 온 이 동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¹⁸한번 기울어진 가운은 다시 어찌는 수 없어, 온 집안사람은, 언제든 당장이라도 서울을 떠날 수 있는 준비 아래, 오직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리 사람들도 그것을 단지 시일 문제로 알고 있었던 것이나, 그래도 이 신전 집의 몰락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한때, 어둡게 해 주었다.

¹⁹그러나 오직 그뿐이다. ²⁰이 **도회에서의 패잔자**는 좀 더 남의 마음에 애달픔을 주는 일 없이 무심한 이의 눈에는, 참말 어디 불일이라도 보러 가는 사람같이,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작은 광고 차부에서 강화행 자동차를 탔다. ²¹천변에 일어나는 온갖 일에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발소 조련이**, 용하게도 막, 그들의 이미 오래 전에 팔린 집을 나오는 일행을 발견하고 그대 이발소 안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을 뿐으로, 그들이 남부끄럽다 해서, 고개나마 변변히 못 들고 빠른 걸음걸이로 천변을 걸어 나가, 그대로 큰길로 사라지는 뒷모양이라도 흘끗 본 이는 몇 명이 못 된다. ²²⊕ **얼마 있다, 원래의 신전은 술집으로 변하고, 또 그들의 살던 집에는 좀 더 있다, 하숙옥 간판이 걸렸다.**

- 박태원, 「천변풍경」 -

(나)

#68. 산비탈 길

¹뚜벅뚜벅 걷고 있는 철호.

#69. 피난민 수용소 안(회상)

²담요바지 철호의 아내가 주워 모은 널빤지 조각을 이고 들어와 부엌에 내려놓고 흠어진 머리칼을 치키며 숨을 돌리고 있다.

철호Ⓞ* : ³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⁴담요바지 아내의 모습 위에 - O·L* -

⁵여학교 교복을 입고 강당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⁶또 O·L되며 신부 차림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⁷그 옆에 상기되어 앉아 있는 결혼 피로연 석상의 철호. ⁸노래는 ‘돌아오라 소렌토’.

#70. 산비탈

⁹철호가 멍하니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섰다. ¹⁰황홀에 묻힌 거리.

#71. 자동차 안

¹¹해방촌의 **골목길**을 운전수가 땀을 빼며 빠져나와서 뒤를 돌아보고

운전수 : ¹²손님! ¹³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겠는데요.

영호 : ¹⁴그럼 내립시다. ¹⁵시시한 동네까지 몰구 오느라고 수고했소.

¹⁶천 환짜리 한 장을 꺼내 준다.

운전수 : ¹⁷(공손히) 감사합니다.

#72. 철호의 방 안

¹⁸철호의 아내가 만삭의 배를 안고 누더기를 껴매고 있다. ¹⁹옆에서 꼴꼴 자고 있는 해옥.

MEMO

영호 : ²⁰(들어오며) 혜옥아!

(중략)

#73. 철호의 집 부엌 안

²¹민호가 팔다 남은 신문을 끼고 들어와 신들메를 끌르며

민호 : ²¹에이 날씨도 꼭 겨울 같네.

철호Ⓢ : ²²어쨌든 너도 인젠 정신을 차려야지! ²³군대에서 나온 지도 이태나 되잖니.

영호Ⓢ : ²⁴정신 차려야죠. ²⁵그렇잖아도 금명간 판결이 날 겁니다.

철호Ⓢ : ²⁶어디 취직을 해야지.

#74. 철호의 집 방 안

영호 : ²⁷취직이요. ²⁸형님처럼 전차 값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남의 살림이나 계산해 주란 말예요? ²⁹싫습니다.

철호 : ³⁰그럼 뭐 뽀족한 수가 있는 줄 아니?

영호 : ³¹있지요. 남처럼 용기만 조금 있으면.

철호 : ³²용기?

영호 : ³³네. 분명히 용기지요.

철호 : ³⁴너 설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호 : ³⁵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철호 : ³⁶(버럭 소리를 지르며) 영호야! ³⁷그렇게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던 말이다.

영호 : ³⁸저도 형님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녜요. ³⁹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살자는 형님을 ⁴⁰허지만 형님! 인생이 저 골목에서 십 환짜리를 받고 코 흘리는 어린애들에게 보여 주는 요지경이라면서 가지고 있는 돈값만치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말 수도 있죠. ⁴¹그렇지만 어디 인생이 자기 주머니 속의 돈 액수만치만 살고 그만둘 수 있는 요지경인가요? ⁴²형님의 어금니만 해도 푹푹 쑤시고 아픈 걸 견뎌내고 절약이 되는 건 아니죠. ⁴³그러니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하니까 문제죠. ⁴⁴왜 우리라고 좀 더 넓은 테두리까지 못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⁴⁵영호는 반쯤 끌러 났던 넥타이를 풀어서 방구석에 픽 던진다.

⁴⁶철호가 무겁게 입을 연다.

철호 : ⁴⁷그건 억설이야.

영호 : ⁴⁸억설이오?

철호 : ⁴⁹네 말대로 꼭 잘살자면 양심이구 윤리구 버려야 한다는 것 아니야.

영호 : ⁵⁰천만예요.

#75. 철호의 집 골목

⁵¹스카프를 두르고 핸드백을 걸친 명숙이가 엿듣고 있다.

철호Ⓢ : ⁵²그게 바로 억설이란 말이다. ⁵³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비틀려서 하는 억지란 말이다.



MEMO

영호㉔ : ⁵⁴비틀렸죠. 분명히 비틀렸어요. ⁵⁵그런데 그 비틀리기가 너무 늦
었다 말입니다.

- 이범선 원작, 이종기 각색, 「오발탄」 -

* ㉔ : 효과음(effect). 화면에 삽입된 음향.

* O·L(overlap) :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
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
다.
- ③ 인물의 화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
다.
- ④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
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
리를 보여 주고 있다.

5 (가)의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 ②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 ④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 ⑤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6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 ②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MEMO

7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담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몸에도 누더기를 껴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8 (나)의 '#68~#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8의 장면에서 이어지는 #69에서 ‘철호㉞’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69에서 ‘철호㉞’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MEMO

9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택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MEMO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학년도 9월 평가원)

1어둠이 짙 갈려 간 밤하늘에는 별들이 빙판(氷板)에 얼어붙은 구슬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2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발밑으로 떨어져 흩어졌다. 3그는 **지금** 가로수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4무거운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았다. 5그는 즈봉 포켓 속에 구겨 넣은 신문지를 다시금 손으로 구겨 쥐었다. 6어머니 -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7그 순간 '아래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실신한 노모'라는 ㉠신문 구절과 함께 노파의 주름진 얼굴이 어머니 얼굴과 겹쳐서 떠올랐다. 8그러나

[A] 곧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다.' 하는 음성이 그의 마음을 뒤덮고 지나갔다.

9'이미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만이 있는 몸이다. 10지금의 네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더 보람 있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지.'

11약 이 개월 전 일이었다. 12그가 투신하고 있는 비밀결사에서는 한 사람을 암살하지 않으면 안 될 경지에 놓여 있었다. 13그리고 바로 계획된 **그날 밤** 오랜 신병 끝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의 어머니가 숨겨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14클랙스 소리가 짧게 밖에서 또 한 번 울려 오고 있었다. 15정각에서 삼십 분 전. 16아광 초침이 파란 빛깔을 그으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열된 동그란 원반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17㉢클랙스 소리가 다시 짧게 울렸다. 18그는 묵묵히 고개를 들고 어둠과 마주 섰다.

19'연기는 안 돼. 20생각해 봐. 21우리가 오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나를……. 22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실패하는 경우엔 이미 우리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23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야. 24

[B] 지금 우리들은 삼이라는 성공 숫자 앞에 와 있다. 25알겠지? 26어머니는 우리가 말을 테다. 27조국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우리들이 아니냐.'

28나직하면서도 몹시 초조한 음성이었다. 29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30어머니의 신음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중략)

31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어머니는 방문이 부시시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32천장이 축 처져서 내려앉은 ㉣밤 안은 더욱 답답하고 어두웠다. 33그는 어머니 앞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꿇어앉았다. 34고개를 약간 모로 낮히면서 아들 모습을 더듬어 가고 있는 그 눈빛은 다 꺼져 가는 모닥불처럼 희미하게 등잔불 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

35'어머니…….'

36노파는 아들의 음성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간신히 흔들어 보이는 것



MEMO

같았다.

³⁷“어머니, 의사가 왔됐어요?”

³⁸그러나 노파는 가만히 있었다. ³⁹그는 어머니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
가 하여 다시 한 번 어머니 귀 가까이 입을 대고 물어보았다. ⁴⁰그리고
나서 어머니 표정을 조용히 지켜다. ⁴¹힘하게 주름져 간 입술이 움직거리
는 것 같았다. ⁴²어머니 손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하므로 그는 어머
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물었다.

⁴³“왜 그러세요?”

⁴⁴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만을 꼭 움켜쥐는 것이었다. ⁴⁵어머니
는 곧 아들의 손을 끌어당겨 자기 뺨 위로 가져갔다. ⁴⁶그리고 이미 시선
과 손의 감각만으로써는 아들을 느껴 볼 수가 없는 듯이 아들의 손을 자
기 입술에 가져다 대어 보는 것이었다. ⁴⁷그는 가슴이 몽클 뜨거운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⁴⁸그는 순간 **머칠 전** 집을 나갈 때 간신
히 입을 열고 중얼거리던 어머니 말씀이 눈앞에 또렷이 아로새긴 것처럼
떠오르는 것이었다.

⁴⁹“언제 돌아오냐?”

⁵⁰“오늘은 못 돌아올 것 같아요. ⁵¹저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⁵²그리고 좀 돌봐 달라고 돈도 드렸으니까 근심 마세요. ⁵³의사도 이따 저
녁에 다시 한번 들를 거예요.”

⁵⁴“오냐.”

⁵⁵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허공에 눈 주고 있다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C] ⁵⁶“어머니는 아들만을 위해서 있단다. ⁵⁷나이 들면 들어 갈수록…….”
⁵⁸그러나 아들이야 그럴 수 있겠니, 제 할 일이 더 중한데…….”

⁵⁹그 말을 듣는 순간 노쇠한 어머니의 애뜻한 기대를 깨닫지 못하는 바
아니었으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었다.

⁶⁰그는 **지금**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채 자기 손을 끌어당겨다 입술 위
에 대고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고 있었다. ⁶¹얼마
후 자기 손을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손은 맥없이 그대로 멈추어졌다. ⁶²그
는 뼈만이 앙상한, 여윈 어머니의 손가락으로부터 어머니 눈 위로 시선을
옮겼다. ⁶³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희미한 어머니의 눈빛, 마치 그것은 먼지
속에 퇴색하여 버린 **유리알**처럼 빛을 잃고 있었다. ⁶⁴그 순간 어머니는
지금 아들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속에서 느끼
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어두운 선을 그으며 지나갔다.

⁶⁵**다음날** 그는 밀회 시간을 어기고 그대로 어머니 곁에 있었다. ⁶⁶정오가
가까워서였다. ⁶⁷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집 앞에서 급히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났다.

- 오상원, 「모반」 -

MEMO

10 위 글의 서술상의 시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지금(1) → 그날 밤 → 며칠 전 → 지금(2) → 다음날

- ① ‘지금’(1)과 ‘지금’(2)는 공간적 배경이 다르다.
- ② ‘그날 밤’과 ‘지금’(2)는 시간적 배경이 동일하다.
- ③ ‘그날 밤’과 ‘며칠 전’ 장면은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
- ④ 실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며칠 전’이 가장 먼저이다.
- ⑤ ‘다음날’에는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 암시되어 있다.

11 ㉠~㉣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이것’은 주체와 타자,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이다. ‘이것’을 매개로 주체는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동시성과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것’은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갖는 장치로 활용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보기>의 ㉠~㉣ 중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보기
 소설 읽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여행이다. 우리를 안내하는 작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여행을 돕는다. 그는 ㉠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기도 하고, ㉡ 개념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을 떠난 여행이 그렇듯이 소설을 읽는 여정 역시 순조롭지만은 않다. 작가는 ㉢ 외부 사물의 묘사로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암시하기도 하고, ㉣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3 [B]와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에서는 ‘그’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② [B]에서는 ‘비밀결사’가 ‘그’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③ [C]에서는 ‘그’의 ‘할 일’에 대한 어머니의 불신을 읽을 수 있어.
- ④ [C]에서는 ‘그’를 만류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어.
- ⑤ [B]와 [C]의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MEMO

1“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겠나?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2“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3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씹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는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4“……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5“무에 어째 공연한 일이란 말이나?”

6부친의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7“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8“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9㉠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

[A] 면 양반에 진국이 뭍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 위하여 쓴 것이다. 10하기 때문에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11중간의 험잡매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 보기는 처음이다.

12“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13‘재하자 유구무언(在下者 有口無言)’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14“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15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룻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16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 의관(덕기의 조부)이 죽고, 덕기가 재산 상속자가 된다. 조 의관의 유산 목록에 정미소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훈은 정미소를 차지하려고 한다. 한편 상훈은 세간 값을 적은 종이들을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라고 한다.

MEMO

17“어제 그건 봤니?”

18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19“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20역정스러운 목소리나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 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21ⓐ 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22“안 치러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3턱기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말부리만 따고 또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24그러나 복통이 터져서 속은 끓었다. 25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 싶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좌(稠人廣座)* 중에서 그럴 수도 없다.

26“이 판에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게 아닙니까?”

27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다.

28“이 판이 무슨 판이란 말이나? 그 따위 아니꼬운 소리 할 테거든 그거 내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

29영감은 자식에게라도 좀 점해서* 그런지 화만 버럭버럭 내고 호령이다.

30“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 [B] ……”

31“무어 어째? 널더러 먹여 살리라니? 걱정 마라. 아니꼽게 내가 무슨 총찰이나? 그러나 정미소 장부는 이따라도 내게로 보내라.”

32부친은 이 말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33“정미소 아니라 모두 내놓으라셔도 못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

34“드릴 수 있고 없고 간에, 내 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냐?”

35“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게 두시면 어디 갑니까?”

36“이놈 불한당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돈 천도 못 되는 것을 치러 줄 수 없다는 놈이 무어 어째?”

37부친은 신경질이 일어났는지 별안간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려는 것을 덕기가 별떡 일어서니까 주먹이 어깨에 맞았다. 38병적인지 벌써 망녕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흥분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마루로 피해 나와 버렸다.

39그러나 금시로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속에 앉은 부친은 판 세상 사람같이 생각이 들었다. 40㉠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



음에야 가면을 벗어 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
고도 하겠으나, 노래(老來)에 이렇게도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
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도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 -

- * 조인광좌 : 여러 사람이 뻘뻘하게 많이 모인 자리.
- * 점해서 : 부끄럽고 미안해서.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훈의 부친은 족보를 만드는 데에 ‘한 천 원’이 들었다며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 ②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돈을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 상훈은 자신의 부친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 ④ 덕기는 ‘세간 값’으로 치러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 ⑤ 덕기는 집안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

15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에게 말을 돌려서 하려는 것이다.
- ②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다.
- ③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같게 하려는 것이다.
- ④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다.
- ⑤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16 **[A], [B]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자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와 달리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한다.
- ② [A]와 달리 [B]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한다.
- ③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간섭을 못마땅해한다.
- ⑤ [A]와 [B] 모두에서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

MEMO

17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삼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 ①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 ②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 ③ ㉠에서는 영감의, ㉡에서는 덕기의 시각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그와의 심리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와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